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 기독교인 여성 부청장 임명



파키스탄 신드주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공무원 사라 자베드(Sarah Javed)를 여성 부청장으로 임명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의 공공기관 참여 확대와 평등의 상징적인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다.

신드주 수석장관실은 4월 12일 발표한 공식 공문에서, 파키스탄 행정 서비스(PAS) 18등급 공무원 사라 자베드를 상가르 지구의 신임 부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자베드는 이전까지 주 수상 비서실에서 부 비서로 근무했다.

자베드는 2014년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뒤 10년 넘게 공공행정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카라치의 사다르와 SITE 구역, 하이드라바드 지역에서 보조 청장으로, 그리고 타르파르카르 지구에서는 제1수석부청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카라치 남부 지역의 방역 대응을 총괄하며, 보건 시스템 조율과 안전 지침 실행에 기여했다. 이 공로로 자베드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자베드의 이번 임명으로 파키스탄 기독교 공동체는 공공서비스에서 모든 공동체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자브주 의회의 기독교 의원인 예자즈 알람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을 부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파키스탄 행정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라며 “그녀의 리더십이 보건, 교육, 지역 개발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편자브주 인권·소수민족부 장관을 역임했던 어거스틴은 또한 “샤바즈 바티(Shahbaz Bhatti) 전 장관은 정부 일자리에 소수자를 위한 5% 할당제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나 역시 고등교육기관에 2% 할당 제도 도입을 위해 힘썼다”며, “이들 제도의 목적은 소외된 기독교 공동체와 다른 소수 집단들이 파키스탄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사회과학자이자 기독교 사업가인 아잠 메이라즈는 자베드가 기독교인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지역 행정을 책임지게 된 것에 기쁨을 표했다. 기독교인 모세스 줄리어스는 “사라 자베드가 신드 최초의 기독교인 여성 부청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글을 남겼다.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1.6%에 불과하지만, 교육, 보건, 군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파키스탄 대법원 유일의 비무슬림 대법관 A.R. 코넬리우스와, 한센병 퇴치 운동에 헌신한 “파키스탄의 마더 테레사” 루스 파우 박사가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10,12)

하나님, 파키스탄에서 박해와 핍박의 대상인 여성 그리스도인을 주께서 택하시고 정부 기관에서 주님의 의를 위해 섬길 기회를 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공의와 정의가 희귀한 이 땅에 소수민족을 위한 역할이 잘 담당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를 불러내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통로 되게 하소서. 교회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주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영국 시민단체, ‘조력자살 대신 호스피스 지원’…반대 청원 9,200명 서명

조력자살 합법화에 반대하는 영국 시민단체들이 9,200명 이상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영국 총리관저에 제출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이 청원은 ‘태아 생명 보호 협회(SPUC)’가 주도했으며, 조력자살을 국가가 허용하는 길로 나아가는 대신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에 대한 재정 지원 개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서에는 “향후 25년간 완화의료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호스피스 재정 모델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향후 10개년 국민건강보험 계획에 호스피스 재정의 장기적 개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UC 북부지역 담당관 테리 그레이엄은 “영국은 현재 완화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발표된 마리 퀴리 재단(Marie Curie)의 연구에 따르면, 유족 응답자의 약 절반(49%)이 가족이 받은 임종기 치료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8명 중 1명은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히브리서 13:18)

하나님, 조력자살 합법화를 반대하는 영국 시민단체들의 청원에 영국 정부가 겸손히 귀 기울여 주셔서 주신 존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먼저 앞장서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라 재정적 위기로 인해 조력자살을 조장하는 바극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영국 교회가 더욱 복음에 창념하고 세상에 대하여 기도로 싸워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선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생명으로 반응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 이란, 남부 항구 폭발로 40명 사망·1,200명 부상

이란 남부 도시 반다스 압바스에 위치한 사히드 라자이항에서 26일 폭발이 발생해 40명이 사망하고 1,200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폭발이 너무 강력해 50km 밖에서도 폭발음이 들렸고, 항구 건물 대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히드 라자이항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최대의 항구이다. 업무가 시작되는 날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구에 직원이 많은 때라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현장엔 강풍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다른 컨테이너로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기 중 유독성 물질이 반다스 압바스 전역에 번지면서 당국은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으며, 학교·사무실은 폐쇄됐다. 이란 관리는 화재 발생 후 관영 언론에 폭발이 화학제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보안업체인 엠브리는 항구에서 이란 탄도 미사일 고체연료로 쓰이는 화학물질을 잘못 다루서 생긴 화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란 국방부는 이런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시편 116:3-4)

하나님, 이란 항구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나라를 주께 의탁드리며 불길을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유독 물질과 강풍으로 인해 속수무책인 이 비상한 때보다 더 위급한 것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간구할 이름이 되시는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상태이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계시하여 주사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에서 이란의 영혼들을 건져 주십시오. 또한 박해 가운데 굴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셨사오니 이들을 통해 참된 구원의 통로를 열어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캔디에서 ‘부처 치아’ 전시에 인파 몰려 4명 사망·2천 명 실신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현지 불교도들이 석가모니의 것으로 믿는 치아 사리 전시 사찰에 대거 몰려드는 바람에 장시간 줄을 선 채 기다리던 4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실신했다고 AFP통신이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2대 도시인 캔디의 한 사찰이 보존 중인 ‘석가모니 치아’를 지난 18일 열흘 일정으로 전시하자 이를 직접 보려는 방문자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해 전시 개시일에는 1.2km에 이르는 줄을 서야 했다.

현지 관리들은 전시 7일 차인 전날 오전에는 약 45만 명이 10km 길이의 줄을 서서 사찰 입장을 기다렸다면 이는 당초 예측한 1일 방문자 20만 명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FP에 “현재 줄을 선 사람들이 이동하는 속도를 보면 오전 중 줄을 선 사람들조차 사찰 입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캔디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밤을 새워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탈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했다.

캔디시의 한 국립병원은 전시 개시 이후 입원한 방문자가 300여 명이라면서 이들 가운데 연로한 여성 한 명을 포함해 4명은 병원에 도착한 즉시 사망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또 현지 관리들은 “2천여 명이 줄을 서고 있다가 실신해 이동보건센터로 옮겨져 치료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맞아 경찰 등 1만여 명을 배치한 당국은 폭력 발생할 수 있는 압사 사고를 막고자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순례 불자들에 의해 포화상태인 캔디시 상황을 감안, 모든 추가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석가모니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가 2009년 3월에 이어 16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직전 전시 기간에는 총 100만 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됐다. 당국은 이번 전시 기간에 약 2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당초 예측했으나 이 수치는 전시 5일 만에 돌파됐다고 AFP는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로마서 1:23,25)

하나님, 복과 행운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불치사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했다는 스리랑카의 안타까운 소식에 기도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헛된 것을 숭배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참되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찬송케 하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거리 전도자 첸원성, 교도소 출소 당일 거리 전도 재개



중국 후난성(湖南省) 형양(衡陽) 출신의 기독교 거리 전도자 첸원성(陳文勝)이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지난 4월 2일 출소했다. 첸은 출소 당일, 더산(德山) 교도소에서 형양 시내 호텔로 호송된 직후, 아내와 함께 거리 전도를 재개했다.

기독교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첸원성은 2023년 8월 29일, 한국 제주도로 복음 전파를 위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상하이 공항에서 당국에 의해 출국금지를 당한 데 이어 형양으로 송환돼 15일 간의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형양시 공안국 시구 지국은 그를 구금하고, 같은 해 10월 25일 정식 체포했다. 그가 기소된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0조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조항이었다.

첸의 재판은 2024년 4월 18일 시구구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당일 법원 주변은 경찰과 보안 인력이 배치돼 지지자들의 접근이 제한됐으며, 법정 내 방청석도 대부분 정체불명의 인물들로 채워졌다. 그의 가족 중에는 아내와 아들, 형, 형수만 입장할 수 있었고, 86세 노모는 자택에 격리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7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첸원성이 총 9차례에 걸쳐 복음 전파 활동한 데 대해 행정 구류 처분(총 130일)한 데 이어, 시장과 교차로, 상점, 소수민족 지역 등에서 반복적으로 집단 혹은 개인 전도를 실시해 사회 질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첸은 출소 사흘 뒤인 지난 4월 5일, 중국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더산 교도소에서 형양 호텔로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다시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는 빌립보서 1장 12-14절을 인용하며, 복역이 도리어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했다. 첸은 교도소 내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 300명이 넘는 수감자와 함께 기도했고, 그중 3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로마서 1장 14-16절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하기 원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것”이라며 자신의 사명을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일서 4:18-19)

하나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공공연한 중국에서 수차례 구금을 당했음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더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첸형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진리의 노래가 성도들을 통해 어두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사 생명 얻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감옥이든 거리이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을 통해 박해받는 중국 교회가 온전한 사랑 안에 굳게 세워져 이기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소서.

▲ 한국대법원, 엘지비티 권리 확대한 반헌법적 판결 담은 홍보 영상으로 “논란”

대법원이 동성애자와 장애인 등 엘지비티(LGBT) 권리 확대에 이바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표 사례로 담은 새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25일 ‘법의 날’을 맞아 ‘사법의 전통을 잇다, 변함없이 변화하다’라는 제목의 법원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약 23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역사와 함께 ‘권위주의 시대 청산’, ‘국민의 기본권 보호’, ‘LGBT·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세 가지 주제로 대표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LGBT 권리를 인정한 상징적 판결로 소개됐다. 이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법원의 결정과 홍보영상은 반헌법적인 행태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역대하 19:7)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엘지비티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대법원의 새 홍보 영상에 넣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옳다 하며 죄악을 부추기는 대법원을 주께 고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침으로 행하고 있는 대법원을 꾸짖어 주시고 정욕과 탐심으로 영혼을 부추기는 사탄을 멸하소서. 한국교회가 공의의 십자가를 더욱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터 삼은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 필리핀 선관위 도청한 중국인 체포...필리핀 총선 개입 의혹 제기돼

중국의 필리핀 총선·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인 1명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하려던 혐의로 체포됐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은 전날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선관위 사무실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IMSI(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 캐처’를 작동시키던 중국인 남성을 붙잡았다. IMSI 캐처는 가짜 이동통신 기지국 역할을 해 반경 약 1-3km 안에서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를 가로채는 장비다. 이 남성은 선관위 사무실 근처를 3번째 방문하다가 체포됐으며, 필리핀 대법원·법무부,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등지도 찾았다고 국가수사청은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중 노선을 펼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측과 친중에 가까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대결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이사야 56:1)

하나님, 선관위뿐 아니라 대통령궁과 군 기지 등 민감한 지역을 도청,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까지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혼란 가운데 있는 필리핀을 의탁드립니다. 이러한 국가적 범죄를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해 나라들의 안보를 위협하면서도 발뺌하는 중국의 탐심과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지금 이때야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신 빛 되신 주님을 주목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몸 된 교회가 주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고, 주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온 땅 곳곳에 알릴 여호와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